

대형 마트·SSM 광주 입점 철회 잇따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풍암·치평점 입점 철회 중기청 사업조정 타결... 골목상권 성장 기대

광주지역에 더 이상의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풍암점, 지난 1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치평점 입점 철회를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지역 SSM 사업조정이 모두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주)삼성테스코는 지난 4월 우산점, 5월 동림점 입점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 치평점·풍암점 개점을 철회해 광주지역에서 단 한 개의 SSM도 입점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에 철회된 치평점·풍암점은 지난 해 3월 31일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

고, 같은 해 4월 광주시의 '일시정지 권고'로 개점을 못하고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 광주·전남중기청과 광주시는 삼성테스코측과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조정 협의회를 18회 중재했다. 자율조정협의회 초기에는 중소기업단체는 개점 불가, 테스코측은 개점을 견지하는 등 팽팽하게 양측이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자율조정이 10회 이상 진행되면서 대기업 입점을 반대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요구가 반영돼 결국 테스코측이 입점을 철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광주시의 주민감사 청구의견 등을 받아들여 광주시 북구가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허가를 취소한 것을 더하면 사실상 광주지역에 대형할인점과 SSM 추가 입점은 합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마트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홈플러스가 입점 철회를 하는 등 입점 저지여론의 우세 속에 우리 지역에 더 이상의 SSM 입점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와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이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더 치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이날까지 SSM 사업조정 신청 8건 모두를 완료했으며 8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4건과 3건은 사업자와 신청인 협회, 1건은 중소기업중앙회 반례 등으로 처리가 마무리됐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입점 동향 파악 및 현장 소통 강화, 사업조정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저점 매수 기회 타진 바람직 반도체 등 내수주 중심 대응

글로벌 정책공조와 경기부양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다시 변동성 확대 국면을 맞고 있다. 대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유럽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유럽사태가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신용위기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의 부정적인 경기전망과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소식도 가뜰이나 유럽사태의 파장을 우려하던 투자자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요인이 됐다.

이에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 외환시장까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등 자산시장 전반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다.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글로벌 정책 공조의 시급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나 좀처럼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더해지고 있다. 일단 유럽사태가 글로벌 신용리스크로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국의 대응책 마련에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동요가 심상치 않는데다 유럽사태와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대거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다. 한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했지만 미국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정책의 조화를 강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에서 유럽사태의 방향성이 가시화될 경우 우려감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말 기준 KOSPI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저평가 수준이다. 통상 기업실적의 불투명성이 급격하게 커지거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밸류에이션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만큼 최근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효과적인 정책 대안 제시나 유럽사태의 위기감 완화 시그널이 감지될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강하게 부각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탄력적인 매매 자세는 필수로 하겠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 할 정도로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그만큼 잠재 대응에 있어서도 외부변수 변화에 따른 변동성에는 꾸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나빠질수록 대안 마련 노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추가 수단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격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 기회를 타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 경우 자동차, 반도체, 중국관련 내수주 중심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업종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낮은 이익변동성과 주가의 중기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반도체는 후발업체들의 감소로 D램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며 최악의 상황을 넘어가고 있고, 중국 소비관련주들의 경우 내수비중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기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경절을 앞둔 수요확대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박종모
〈신원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코스피 103P 폭락...환율 1200원선 위협 금융시장 '암흑천지'

코스피가 103포인트나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달러당 1200원선을 위협하는 등 금융시장이 암흑천지로 변했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03.11포인트(5.73%) 폭락한 1697.4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이날 3.56% 내린 1736.38에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하락이 커졌다. 코스피가 17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친 것은 지난해 7월 8일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실망에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폭락한 것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오후에는 새로운 약재가 추가돼 코스피가 1700선마저 내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리스 은행 8곳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씩 강등했다는 소식에 맥없이 주저앉은 것이다. 장 초반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팔자'로 돌아서 6789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099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

타냈다. 개인은 899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금이 1262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보험(1666억원), 증권(837억원), 투신(697억원)이 일제히 매도에 나서 방어에 역부족이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3.8원 내린 1166.0원에 마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15.2원 급등한 1195.0원으로 출발했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그러나 상승압력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1196.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져 환율은 들쭉날쭉하더니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 외환딜러는 "정부 개입에 금등세는 진정됐지만, 역외 달러 매수세가 강해 환율 상승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아직 시장은 환율 상승 쪽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연합뉴스



스카프로 '가을여자' 되기
가을철 인기가 높다.

2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잡화매장에서 한 고객이 다양한 스카프를 구경하고 있다. 스카프는 목을 감싸 보온효과가 있으며 패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어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햇살론 대출 쉬워진다 금융위 심사 완화...전환대출 3000만원까지

서민에게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햇살론의 대출심사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경직된 햇살론 대출심사 요건을 다양화한 종합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 26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대출을 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 햇살론은 ▲최근 1년내 대출보유 건수 ▲최근 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여부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요소를 따져 대출한다. 자영업자 햇살론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토대로 개인신

용등급 외에 ▲사업경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반영한다. 햇살론은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12월까지 월평균 125억원씩 나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1억원씩 취급되는 데 그쳐 실적이 크게 둔화했다. 이는 초기 자금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된 데다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다소 확실히 적용한 탓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대부분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의 고금리 대출을 연 11~14%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햇살론의 전환대출 한도도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어린이 세관학교 운영

광주본부세관이 초등학교 4~6학년 23명에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관세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 세관학교(Kids Customs School(KCS))'를 운영한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쉬는 토요일을 이용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세관학교는 오는 토요일을 확실히 즐기면서 미래 직업 우선순위에 세관 공무원이 꼽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오감 만족'을 위해 다양한 견학과 체험으로 구성했다.

첫날 어린이 관심 유도를 위해 진짜 가짜 상품 이야기로 시작해 무안공항 현장 체험, 전문 검사 기사작성 지도 등 어린이 기자 체험, 다문화가정 체험, 밀수 단속현장 상황극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최재희기자 lion@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인턴 200명 선발

신세계 그룹이 하반기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일할 대학 졸업 예정 인턴사원 200여 명을 뽑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내년 2월과 8월 졸업예정자이며 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신세계그룹 채용 사이트(job.shinsegae.com)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2월 초까지 7주간 교육 및 현장 실습을 받는다. 이후 2월 졸업자는 최종 면접과 채용 검진을 통과하면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며 8월 졸업자는 3개월간 학기 중 수행과제를 이행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가을 여행 특가 상품

상품 1 新제주 관광명소탐방 3박4일

매주 월요일 출발 ₩189,000 ~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매주 목요일 출발 ₩209,000 ~ **광주왕복항공**

관광일정 : 유리의성, 오설록 녹차박물관, 서커스월드 또는 코끼리쇼 관람, 카메라야힐, 새연교, 올레길7코스, 관광열차체험 또는 선녀와나무꾼, 조랑말체험, 허브동산, 해양테마파크, 해녀촌

포함사항 : 왕복항공, 숙소(합숙기준), 식사(조3+중2), 관광요금, ★유가할증료 포함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 10,000), 선택관광, 2인1실 이용시 30,000원추가

상품 2 인기절정 주중 1박2일 골프여행특가

★ 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 1실) 36홀 ₩349,000
- 아덴힐CC 18홀 + 한라산CC 18홀

★ 오션스위츠 호텔 (2인 1실) 36홀 ₩429,000
- 블랙스톤CC 18홀 + 엘리시안CC 18홀

상품 3 직장인을 위한 매주일요일출발 1박2일 골프

★ 부영 골프텔 30평 (4인 1실) 45홀 ₩329,000
- 제피로스CC 18홀 + 부영CC 27홀

포함사항 : 왕복항공, 숙소, 그린피, 수송차량
불포함사항 : 식사, 전동카, 캐디팁, 기사팁, 유가할증료 (₩26,400)

협 찬	KOREAN AIR	Home plus	emart	LOTTE Mart	emart	LOTTE Mart	Home plus	emart	LOTTE Mart
	각화동 홈플러스	신세계 E마트	수완 롯데마트	광산 E마트	첨단 롯데마트	계림동 홈플러스	봉선 E마트	염주 롯데마트	
	269-9363	360-0166	953-5151	945-7500	974-0033	227-3555	653-5230	676-0085	